

# 전자책, 종이책의 종말을 예고하는가?

글\_서주현 북코스모스 저작권팀 영미권 담당

최근 〈New York Times Review〉, 〈Wall Street Journal〉, 〈USA Today〉 등에서는 소니 리더 관련 기사를 앞다투어 다루고 있다. 이들은 이 기기가 꼭 종이책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처럼 떠들고 있다.

전자책(e-book)은 10여 년 전 이동성과 저장성을 무기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종의 하드웨어 구실을 하는 전자책 전용 단말기에 많은 소프트웨어(책)를 다운로드해서 읽는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단말기는 시장에서 맥을 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고 휴대하기 불편한 크기와 무게, 배터리 방전의 문제 등이 제기된 탓이었다. 거기다 종이에 인쇄된 책과 비교할 때 경쟁이 되지 않을 만큼 불편하고 ‘읽기’가 힘들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가미한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살리기 어려워 텍스트와 멀티미디어의 통합, 어느 한쪽도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소니리더(Sony Reader)’는 기존 제품들과는 분명 달라 보인다. 이전의 전자책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엿볼 수 있다. 종이에 인쇄된 문자만큼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휴대하기도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엿보인다.

올 10월에 출시되어 350 달러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소니리더는 액정 대신 ‘e잉크’와 같은 소재를 표시장치로 내장해 장시간 독서해도 눈이 피로하지 않다고 한다. 소니리더는 별도의 내부 광원을 갖추지 않고 외부의 빛이 있어야 글씨를 읽을 수 있게 설계돼 일반 책의 느낌을 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미권의 보급판 도서보다 작고 가벼운 이 기기에는 80여 권의 전자책을 저장할 수 있는데, 메모리 스틱이나 카드를 추가하면 그 이상도 저장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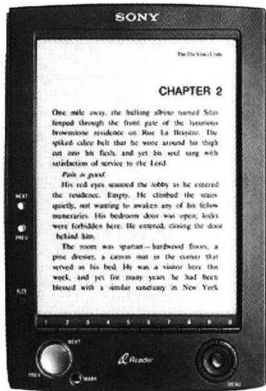
리더기 발매와 동시에 오픈하는 온라인 전자책 서

점 ‘소니 커넥트(Sony Connect)’는 미국내 6개 대형 출판사와의 계약을 통해 1만 여종의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한다. 콘텐츠의 가격은 일반 책에 비해 25% 정도 낮게 책정됐다.

한편 소니 리더 보다 더 진보된 모습인 일명 ‘최후의 책’을 MIT 미디어 연구실에서 개발중인데, 인쇄매체와 똑같은 모습의 전자매체로 스마트 물질의 전자잉크를 사용하여 책의 내용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

전자책(e-book)은 1998년 미국의 누보미디어사에서 세계 최초로 전용단말기인 ‘로켓e-북’을 출시하고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킹이 2000년도에 ‘총알 타기(Riding the Bullet)’라는 소설을 전자책으로 출간, 2달러 5센트의 가격으로 하루만에 40만 카피가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팔리는 기염을 토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다.

1999년 9월 MS사, 반스앤노블, 누보미디어 등 100여 개 업체를 중심으로 Open eBook 이라는 전자서적 기술 표준안을 발표했으며 2001년 여성 전미도서협회에서 기초연설자가 “다운로드 가능한 전자책 시장은 향후 2년간 매년 40퍼센트씩 증가해서 2008년이 되면 25억달러(약 2조 4천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2010년 이후 수년 내에 전자책은 책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연설을 하면서 전자책에 대한 환상이 불거져 나왔으나 2003년 반스앤노블스가 이북 매장을 닫았고, 팜(Palm)이 한 웹사이트에 전자책 사업을 파는 등 전자책은 처음에는 완전히 실패했었다. 그 후 전자책 시장은 기복과 성장을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쇼(CES2006)에서 소개한 전자책 '소니 리더', 올 여름부터 미국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학생 등 특정 집단은 아주 행복해 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전자종이가 진짜 종이를 밀어내면서, 결국 종이책은 사라지게 될까? 언젠가는 가능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는 힘들지도 모르겠다. 소니리더는 분명 감동적인 진보이며 장정책의 편리한 대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배터리도 필요 없고, 떨어뜨려도 부서지지 않는 우리의 오래된 기계, 바로 종이책을 고집하는 그룹이 쉬이 사라지는 않을 것이다. 편안한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서 다음 장에 펼쳐질 내용을 기대하며 한 장 한 장 넘기는 끼슬끼슬한 종이의 느낌은 그 어떤 기계에 비할까.

한편 세계 많은 나라에서는 디지털 도서관 작업을 상당 부분 이루어가고 있는데, 구글은 일찌감치 구글 프린트라는 이름으로 세계의 모든 활자 인쇄물을 디지털로 옮기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구글은 뉴욕 국립도서관은 물론이고 하버드와 스탠퍼드,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들의 목록을 구축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로 프랑스와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 8개국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구글에 뒤질세라 야후에서도 '열린 도서관'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영국 국립문서국과 유럽 문서국 네트워크, 뉴욕 프렐링거 문서국을 비롯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도서관과 캐나다 토론토대학 도서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PDF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도비와 프린터 제조업체인 HP, 정보기술 전문 출판사인 오라일리 미디어 등도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 전자책이 종이책을 밀어낸다?

늘 책을 끼고 사는 독서광에게는 사실 전자책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다. 수백 권의 책도 작은 단말기 안에 넣어둘 수 있으니 책꽂이를 놓아야 할 공간이 필요 없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다. 여유 있게 서점 안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책을 고를 것이 아니라면 파일로 된 전자책을 1-2분이면 간편하게 구입해서 보면 그만이다.

특히 전자책이 보편화 되면 기기광이나 엄청난 서류에 허덕이는 변호사, 무거운 참고 서적을 뒤져야 하는 의사와 무거운 가방을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고등

### 우리 출판의 미래는?

한국에서도 한동안 존폐론에 휩싸여 있던 전자책이 컨버전스 흐름을 타고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대체로 전자책은 종이책의 40% 안팎에 판매된다. 교보문고 추산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종이책과 비종이책의 시장 비중은 각각 97%와 3%씩이다. 그런데 2010년이면 이 비율이 88%와 12%로 좁혀들게 될 것이다. 종이책의 온라인 판매 비중도 20%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자책은 차세대 미디어로 각광받으며, 전문서적 및 백과사전 등이 전자책으로 빠르게 대체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요금체계의 구성으로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책 읽는 환경을 다변화할 수 있는 전자책이 출판의 지평을 넓히면서 책의 품질 향상까지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 이 글을 쓴 서주현은

지칭 '책을 통해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의 북피스트(bookpist (book+happy+ist)), 많은 사람들에게 책의 가치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을 전파하는 게 꿈이다. 북코스모스 에이전시의 저작권 에이전트로 영미권 도서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영어 및 일어 통번역 활동도 하고 있다. 중개한 책으로는 《내 생애 남은 아름다운 날들》(미친 뇌가 나를 움직인다) 《돈의 원리》(Smart Question) 《동방을 꿈꾸며》 등이 있다.